

민주, F1 지원법 처리 의지 있다

4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포함 안돼...균발법 개정안도 방관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F1 지원법)이 1일부터 30일까지 계속되는 4월 임시국회 민주당의 중점추진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 영남에 2개, 호남에 1개의 경제권이 배정되는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처리 등 방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중점추진법안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 연체이자상환선 제한법, 인사청문회 강화법, 비정규직 해소법, 노인 복지법 등 30개 민생관련 법안을 지정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F1 지원법은 민주당의 중점추진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F1 지원법의 경우, 일단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경기지원특위 법률심사소위에 상정된데다 여야 간에 4월 임시국회 통과와 관련,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전남도의 F1 대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놓고도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물론 18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F1 지원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F1 지원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전남도의 F1대회 유치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영남에 2개, 호남에 1개가 배정되는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아 눈치를 사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에 따라 수박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히, 김동철 의원이 전북을 호남 광역경제권에서 분리, '5+3 광역경제권'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는데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안을 담은 균발법 개정안과 김동철 의원의 균발법 개정안 대안이 표결이 실시될 경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정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5+2 광역경제권' 설정에 반대하는 광주·전남지역 민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는 타 지역 출신으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전남지역 민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북 출신의 정세균 대표, 경기 출신의 원혜영 원내대표, 충청 출신의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에 반대 입장을 밝혀놓고도 자신들의 지역 현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통해 '5+2 광역경제권' 설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영록, 강기갑 의원 등 국회 농촌지역 의원들과 농민, 축산·수산업체 대표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EU FTA, 연내 비준·내년초 발효 계획에 대한 타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EU, FTA 체결 초읽기...전남 양돈농가 초비상

삼겹살 관세 철폐면 직격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체결 단계에 들어서면서 전남도 내 양돈농가와 낙농가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양돈농가의 생산성이 국내보다 높는데다 관세까지 철폐될 경우 유럽산 돼지고기의 가격이 국내산 가격의 절반 가량으로 떨어져 전남지역 양돈농가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잠정 타

결된 한·EU FTA 협상 중 축산 관련 주요 내용은 유럽산 돼지고기의 관세가 삼겹살은 10년, 삼겹살 이외 부위는 5년 이내에 철폐된다. 현행 25%인 냉동 삼겹살의 관세는 매년 2.5%씩 감축하게 된다. 냉동 삼겹살의 경우 현재 EU산 가격은 국산의 86.6% 수준이지만, 관세가 철폐될 경우 72.1%로 낮아지게 된다.

돼지고기는 현재 EU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6%에 달하고 있는 만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양돈협회는 대

수 수입고기가 유럽에 집중된 만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양돈업 피해규모(1조866억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분유·치즈 등 대표적 유럽산 낙농제품의 경우 관세를 10~15년 장기기간에 걸쳐 철폐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점차 늘리기로 잠정 합의됨에 따라 낙농가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전남도 내 낙농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3가구 3만2천두이며, 착유량은 하루 370t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경험 축적·인프라 확충 광주 U대회 유치 승산”

조선대 석좌교수 임용 김운용 前 IOC 위원



즉 대회 유치로 인해 지역이 벌어들이는 돈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대회 유치의 타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다.

이와 함께 김운용 전 IOC부위원장은 “태권도와 스포츠외교에 바친 지난 세월을 조선대에서 높이 평가해줘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조선대 석좌교수로서 대학의 발전은 물론 호남 지역의 스포츠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임용 소감을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위정락기자 jrwi@kwangju.co.kr

“지난 해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는 만큼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달 31일 조선대학교 석좌교수 임용 김운용 전 IOC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해에 벌인 2013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 운동은 사실상 준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유치 운동도 제대로 끝까지 못했다”면서 “지난 해에 열심히 뛰여 기반을 닦아놓은데다 올해도 광주시와 지역 사회단체, 체육계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 해 U대회 유치위원회 명예위원장이자 올해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김운용 전 IOC부위원장은 “2011년 대회를 따낸 중국의 경우 준비기간만 무려 6년이 걸릴 정도로 U대회 유치는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하지만 광주는 몇 개월 사이에 지난 해와 차별된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이제 남은 50여일 동안 총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IOC부위원장은 “지난 해에 비해 올해는 특급호텔이 하나 늘어난데다 현재 대규모 특급호텔이 건설중이고, 체육시설 등 각종 인프라도 구축중이어서 해볼 만하다. 우리의 장점을 오는 6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시 최대한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U대회 이익금으로 학생 재단을 만들어 세계 대학 발전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획기적인 공약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14명의 FISU 집행위원을 우리의 지지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공약, 인간관계, 경제적 투자 등 광주의 모든 자원을 총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U대회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대회 개최를 통한 도시 이미지 상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가 U대회를 유치할 경우, 광주는 세계속의 도시로 도약함은 물론 지역 내 대학들도 세계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고, 지역민들의 자부심과 성취감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는 등은 50여일 동안 총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U대회 유치하자” 시민 열기 고조

광주 실사 앞두고 봄 조성 잇단 행사

2015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광주 실사(4월6일~9일)를 앞두고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치 붐 조성을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21C 광주·전남 대학생연합은 오는 2일 오후 전남대학교 후문 특설무대에서 ‘하계 U대회 유치 기원 광주·전남 대학생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광주·전남 지역 20개 대학 학생 2천여명이 참석, U대회 유치 희망 기원서·송이화(2천15개) 전달, 유치기원 풍등날리기 등을 통해 대회 유치를 염원한다.

실사를 이틀 앞둔 4일에는 ‘2015 U대회 유치기원 외국인 유학생 한마당 축

제’가 열린다.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 주최로 호남대학교 축구장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유학생 1천500명과 대학생, 교직원, 자원봉사자 등 50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U대회 유치기원 이벤트·유치기원 리본날기, 체육행사를 갖는다.

시민들의 행사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10일 범시민지원단 출범식을 갖고 시작된 ‘희망 2015 리본날기 운동’에는 20여일만에 지역 중·고등학생 20만여명을 포함해 모두 75만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뤘다.

또 지난 3월 22일 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치러진 유치기원 경기대회에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여한 데 이어 자치구별로

공원과 산책로 등을 유치기원로로 지정하고 가진 2015보(m) 걷기대회 이벤트 행사에도 시민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이와 함께 질서·친절·정결한 광주 이미지를 실사단에 전달하기 위해 광주시가 이달 초부터 매주 1회 벌이고 있는 거리질서 캠페인과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에도 시민의 호응이 뜨겁다.

이밖에 지난달 30일부터 시와 자치구, 범시민지원단 등 15만여명이 불법 광고물과 거리 쓰레기 치우기, 교통·거리질서 등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나서는 등 실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5 하계 U대회 광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적 붐 조성과 유치기원 활동을 전개하면서 기초질서 지키기를 완벽하게 추진해 FISU 실사단을 감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기자 zenfoot@kwangju.co.kr

우리의 약속은... 장기에

무안 - 장사(장가계) 무안공항 직항!!!

1. 무안 - 장사(장가계) 무안공항 직항

2. 무안 - 장사(장가계) 무안공항 직항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749,000원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799,000원

광주 MBC 문화방송 062-226-6070